

영혼과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찾아서

로버트 A. 존슨 지음
박종일 옮김

내면의 황금



인간사랑



내가 심리분석을 처음으로 배웠던 프리츠 쿤켈Fritz Kunkel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다. “그리스 신화를 읽는 것, 율을 읽는 것, 그리고 관찰하는 것.” 나는 관찰을 통해 아주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한 것은 우리 내면의 연금술로 만들어진 황금의 교환이었다. 내면의 황금은 최고 가치의 인간정신으로서 우리의 영혼, 자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선포善에 이르렀을 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24금 선물이다. 우리는 누구나 내면의 황금을 갖고 있다.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황금에 대해 이렇게 말할 때는 또한 신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먼저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숨겨져

있던 우리의 한 부분이 드러날 때는 무의식에서 의식 가운데로 곧장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중개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우리의 황금을 누군가에게 투사(投射)하며, 그러면 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 몰입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면 그 또는 그 여자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황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특징과 속성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 자신의 깊이와 의미를 깨닫는다. 우리의 황금은 처음에 우리에게서 나와 그들에게로 옮겨졌다가 마침내 우리에게로 다시 되 돌아온다. 우리 내면의 황금을 투사하는 것은 깨달음이 깊어지는 최상의 기회이다.